

문예통신

민족문화예술운동을 활성화하자!

발행:재일본조선문화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주체102(2013)년 11월 30일
제3호

시대를 직시하고 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붓대

문예동교또지부 고문인 신영호작가

올해 77살.

1959년부터 1995년까지 오랜 기간 교토의 민족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문학가로서도 수많은 작품을 발표해왔다.

오늘도 민족사랑, 겨레사랑, 후대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안고 그의 붓대는 멈춤을 모른다.

재일동포사회를 둘러싼 환경이 날을 따라 어려워지는 속에서 일본정부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 조일관계개선, 과거청산 등을 신문투고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한몫을 담당하고있다.

시대를 직시하고 차별에 경종을 울리며 사람들을 계몽하고 불리일으키는것은 문예동작가예술인들의 귀중한 사명이다.

그가 올해 하반기에 일본신문에 투고, 발표된 글의 제목을 소개한다.



朝日新聞 (6月5日)
憎悪表現の横行 心を痛める

京都新聞 (6月4日)
日朝関係は未来志向で

長周新聞 (6月28日)
日本社会の保守化、右傾化を懸念

長周新聞 (9月4日)
浮島丸殉難六八周年の日に

京都新聞 (9月5日)
平和祈り「浮島丸」追悼

長周新聞 (10月18日)
豊臣秀吉の「やきもの戦争」と「耳塚」に思うこと

2013年(平成25年)6月5日 水曜日

京 都 新 聞

憎悪表現の横行 心を痛める

無職 辛 榮浩
(京都市西京区 76)

在日コリアン2世の私は、東京や大阪で「朝鮮人をたたく出世」などとシニブルレヒコールを上げるデモが繰り返されていることに心を痛めている。また、「売春ババア殺せ チョン斬れ」と歌う日本のバンドの歌詞に驚く。そのCDが韓国の元従軍慰安婦らの元に送りつけられたという。国連の社会権規約委員会では先日、こうしたヘイトスピーチ(憎悪表現)の横行、元慰安婦をおとしめる行為を防ぐよう日本政府に求めた。もっともなことだ。日本政府はどう具體的に対応するのだろうか。こうした世相の背景には、政

治家たちの無責任な発言や行為があると思う。安倍晋三首相は「侵略の定義は学界的にも国際的にも定まっていない」と国会で答弁した。これは明らかに事実と異なる。日本によるあの侵略戦争を否定するのだろうか。そして、アジア侵略を進め、東京裁判で断罪されたA級戦犯を祀る靖国神社に今年も大勢の国會議員が参拝した。

この状況の中、私は「朝鮮人が井戸に毒を入れた」というデマによって6千人もの朝鮮人が虐殺された1923年の関東大震災を深刻に思い出す。日本と暮らす私たち外国人が、理解と相互尊重、共存共栄の社会を願っていることを知って下さい。

2013年(平成25年)6月4日 火曜日

京 都 新 聞

日朝関係は未来志向で

西京区・辛 榮浩(無職 76)

京都朝鮮初級学校の竣工式と祝賀宴が先日、京都市伏見区小栗栖で行われた。多くの在日同胞が集い、園児や児童たちの新しい学舎の門出を祝った。

日本の来賓からは、温かいメッセージをもらった。門川京都市長は「未来の輝かしい主人公となるべく、しっかりと学び、日本人とみんな手を取りあつていこう」と励ましてくれた。

その時の在校生たちの真剣な表情を見て、私は、今まで68年間の民族教育を振り返り、思うことが少なくなかった。在日1世たち

の業績による民族教育の歴史を決して忘れてはならない、代を継いで貢献しなければ、と思った。

今、在日同胞を取り巻く日本社会は、大変厳しいものであり、民族教育活動の前に立ちほだかっている障壁は、一つや二つでない。一部団体による在日同胞へのヘイトデモやヘイトスピーチなどが続いており、高校無償化をめぐる「朝鮮学校除外」問題は未解決のままである。

日本と朝鮮は、一日も早く未来志向の関係で強く結びあつてほしいと願う。

문예동도교 《제9차 민족무용의 밤》 성황리에 진행

소중한 맹원들

문예동도교지부 무용부의 인원은 성인조 14명, 청년조 16명 모두 30명이다.

이들이 오늘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지난 11월 15일 《민족무용의 밤》 공연을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도교지부 무용부는 부위원회를 강화하여 맹원들과의 사업을 깊이있게 짜고들어 그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 공연을 특색있게 조직진행하였다.

무용부장은 계영순.

도교조선가무단에서 오래 활동한 후 문예동도교지부 무용부장으로 맹원들을 이끌었다.

출연자수 100명을 넘는 큰 무대, 공연에는 도교만이 아닌 문예동가나가와지부, 사이다마무용소조, 오따무용소조, 학생, 원아들도 출연하였다.

그 연목 창조와 무용지도, 관객동원과 재정사업 등이 방대한 사업을 맹원들의 열성을 발휘시켜 훌륭히 수행하였다.

현재 어린이 셋을 키우는 몸이면서도 무대우에서 또 무대뒤에서도 그의 모습은 빛난다.

《2. 16 예술상》(2003. 2) 수상자의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계속 무용활동에 정열을 쏟아붓는 그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마음을 움직인 무용 《생명》

이번 공연의 부제는 《헌계광의 무용세계》. 공화국공훈예술가, 문예동중앙 무용부장으로 재일조선인무용운동을 위해 창작해온 수많은 작품가운데서도 이번에 새로 만든 《생명》은 또하나의 그의 성과작이다.

《동일본대진재》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이 조국과 동포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원으로 《생명》을 부활시켜 일어서는 모습을 춤으로 형상하였다.

이 《생명》은 피해를 입은 도호꾸지방동



◎ 写真提供 金日泰

포들의 《생명》만이 아니라 현재 탄압의 칼바람속에서 시련을 이겨가는 모든 재일동포들의 《생명》이기도 하다.

이 소재의 작품은 조국에서도 만들지 못하고 오직 재일동포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의 《목소리》일것이다.

무용 《생명》의 무용곡을 공훈예술가인 문예동조대지부 최진욱작곡가가 담당하였다.

록음을 조국의 《영화방송음악단》이 동포애의 뜨거운 정으로 맡아주었는데 이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들이 모두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고 한다.

동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을 창조하고 이를 공연, 전시, 출판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우리 문예활동의 기본이다.



◎ 写真提供 金日泰

《구림전 (丘林展)》 (2013) 이 개최된다

《구림전 (丘林展)》은 문예동도쿄지부 미술부가 오랜 기간 진행해온 지부미술전을 1995년부터 명칭을 바꾸어 도쿄만이 아니라 동일본지방의 미술애호가들을 모두 망라하여 2년에 한번 진행해온 문예동미술부가 주최하는 재일조선인미술전이다.

《구림전 (丘林展)》의 이름은 《조선》을 달리 이르는 청구(靑丘)의 구(丘)와 앞으로 미술을 지향하는 신진작가들이 숲(林)처럼 많이 자라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

20대의 젊은 신진작가로부터 한동회화가를 비롯한 애국 1세대작가들 약 20명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여 자신이 평상시 창작해온 작품들속에서 1~3점을 선별하여 전시한다.

그들이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안고 자신의 생활속에서 시간을 찾아 창조하는 미술작품들을 보여주는 귀중한 전시회이다.

(김임호)

《구림전 (丘林展)》 (2011)출품작품중에서



최려순 작 유화
「asu-命-」



박정문 작 파스텔
「菩提薩座」



한동회 작 유화
「五六島」

■기간 2013년 12월 9일 (월) ~15일 (일) 까지 오전 10시부터 19시까지

※最終日 15일 (일) 은 16시까지

■입장료 무료 ■장소 ギャラリーくぼた別館

地下鉄銀座線京橋駅6番出口徒歩1分 都営地下鉄浅草線宝町下車A5出口徒歩2分

조선무용기본동작강습



올해 7월에 일본각지의 문예동무용부맹원들 197명이 참가하여 건국절 65돐을 기념하는 《제8차 문예동무용경연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무용부는 11월중순에 오사카에서 《조선무용기본동작강습》을 이틀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조선무용기본동작강습》은 조선무용기본을 만들어낸 최승희선생의 생일 100돐에 즈음하여 그의 춤체를 살릴데 대한 방향에 따라 새로 정리된 여자 17동작, 남자 21동작이다.



인민예술가인 금강산가극단 강수내무용가가 지도강사로 출연한 강습에는 오사카지부 21명, 효고지부 10명, 교토지부 8명의 무용부맹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재일동포사회에서 민족성을 고수하고 광범한 동포들에게 조국애, 민족애를 불러일으키는 민족무용운동에서 더 큰몫을 담당할것이다.

2014년 1월 11일, 12일 량일간에 걸쳐 도쿄에서 《조선무용기본동작강습》이 진행되며 도카이지방강습도 예정되어있다.

(임수향)

금강산가극단 특별공연 《춘향전》이 진행된다

12월 12일 北とぴあ에서

金剛山歌劇団と在日アーティスト達
総勢100名の出演者が繰り広げる愛のファンタジー



金剛山歌劇団 特別公演 舞踊ミュージカル
春香伝

2013年12月12日(木) 開場18:00 開演18:30
北とぴあ さくらホール 〒114-8503東京都北区王子1-11-1
S席 7,000円 / A席 5,000円 / B席(2階全席自由席) 3,000円 / 学生席 2,000円 *当日券もあります
主催:金剛山歌劇団 お問い合わせ:042-341-6411

뜻깊은 2013년도를 마무리하는 금강산가극단의 특별공연이 총 100여명의 인원으로써 큰 규모로 화려하고도 특색있게 진행된다.

여기에는 금강산가극단의 현역단원들만이 아니라 30여명의 이전 단원들이 무용과 방창, 연주에 출연하게 된다.

한해를 보내고 멀지 않아 새해를 맞는 벽찬 시기에 희망과 기쁨이 소용돌이치는 무대를 꾸리자고 지금 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일찌기 보지 못했던 100여명의 큰 무대를 문예동맹원들과 애호가들이 많이 관람해주기 바란다.

《춤사랑》

예술생활 30주년기념 고정순 독무회

도쿄조선중고급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조선가무단에서 21년동안 무용배우로 활약해온 고정순독무회.

퇴단후에도 근 10년동안 민족무용에 대한 사랑과 정열을 안고 수많은 무용의 무대를 펼쳐왔으며 오늘도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무용소조강사, 장고소조강사로서 그들의 마음속에 민족의 넋을 심어주고있다.

공연의 제목은 《춤사랑》, 부제는 《조국의 명작을 춤추다》.

이번 공연을 위하여 올해 여름에 조국에서 전습을 받아온 그의 첫 독무회는 민족무용의 멋과 흥취를 보여주는 특색있는 공연이 될것이다.

공연은 오는 12월 6일 四谷区民センター에서 진행된다.



芸術生活30周年記念
高定淳リサイタル
チュムサラン

춤사랑

조국의 명작을 춤추다
~祖国の名作を踊る~



日時: 2013年12月6日(金曜日) 全席自由(一部招待席あり)
場所: 四谷区民ホール 入場料(前売り) 4,000円
時間: 17:30開場 (当日) 4,500円
18:30開演 (高校生以下) 2,000円

【お問い合わせ】(高)090-8568-4978 (東東朝鮮歌舞団)03-5615-3342

後援: 新宿区